

C-3.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대구치 함입

한주영, 박준봉, 권영역, 어 익, 정종역, 김재석
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학교실

연구배경

치아가 결손되면 대합치가 무치악부로 이동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. 과맹출의 결과 인접치 사이에 음식물이 침착되어 치주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대합치 수복에 어려움을 초래한다.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맹출치의 근관치료 후 치아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치관/치근 비율이 부적절해질 수 있다. 부적절한 치관/치근 비율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교정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 또한 mini-implant를 이용한 함입 시 인접치의 이동을 야기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본 환자(23, F)는 초진시 주소는 #17의 저작시, 개구시 동통이었으며 4년 전 골수염으로 #47을 발치한 후 수복하지 않아 #17가 3mm정도 과맹출되어 있었다. #17의 근심에 음식물이 침착되었으며 치주낭 깊이는 7mm, 동요는 2도였다.

#17치아의 함입 후 #47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로 계획하였다.

인접치의 이동 없이 과맹출치만 이동하기 위해 mini-implant를 이용하였으며 함입 시 치주낭의 동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2주 간격의 철저한 치태조절을 시행하였다.

결과

총 치료기간은 5개월이었으며 함입 후 #17의 근심 치주낭 깊이는 4mm였다. #17의 약간 근심경사가 관찰되었으나 주기적 교합조정으로 극복하기로 하였다.

결론

치아 결손으로 대합치의 과맹출이 된 경우에 mini-implant를 이용한 간단한 함입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함입 시 철저한 치태조절이 요구된다.